

# 고위급 회담 재개...미중 무역협상 분수령

### 류허 부총리 등 워싱턴 방문 관세 철회·이행 장치가 난제 트럼프 "잘 돼가고 있다" 낙관

글로벌 경제에 되서리를 내린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중대한 한 주를 맞이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3일부터 미국 측과 무역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

부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고위급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9차가 되는 이들 협상단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의 토대가 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로 주목된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두 정부가 모두 분명히 합의를 원하는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구체적인 것들은 전혀 밝힐 수 없으나 미중 통상관계에서 전례

없이 크고 웅장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특정 수준의 낙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최고 난제로는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된 관세에 대한 철회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거론된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이들 두 의제에 진전이 없다면 이달 양국 정상회담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500억 달러(약 56조8000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2000억 달러(약 227조4000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를 존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구상하며 그런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삽입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강제 이행 장치를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서방으로부터 당한 굴욕을 연상시키는 불공정 협정으로 보고 반발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두 의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정책 등에서도 진전이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미국 내에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중국의 경제여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미국 정부에서도 합의를 향하는 동력이 목격되고 있다. /연합뉴스

## “北관련 모든 조치, 한미 긴밀조율 통해 나와” 미국무부 브리핑 “北과 대화 진행해 나갈 준비 돼 있어”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와 관련, 미국은 계속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한 향후 모든 조치는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방송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한 언급과 관련, “북한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재개한다는 신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폼페이오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진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상 추가로 할 말은 없다. 더 나아가진 않겠다”며 “우리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나

는 우리가 진전을 만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다”며 “우리의 두 정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몇 달 안으로 다시 만나 비핵화하는 길 위에서 실질적인 큰 조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와 관련해 튼튼한 방식을 제안한다면 수용하겠다는 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우리의 동맹들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공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있게 될 모든 미래의 조치들은 우리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균열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이를 재차 일축한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마약과 전쟁 사망자 관련 문서 공개하라” 필리핀 대법 판결

필리핀 대법원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사살된 용의자들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재판 없이 진행된 ‘초법적 처형’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 3일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전날 무로 법률지원단체(FLAG) 등 인권단체 2개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차관은 대법원과 원고에게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숨진 용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문서를 제공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인권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1월까지 경찰의 마약 단속과정이나 관련 사건으로 숨진 용의자들의 명단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호세 마누엘 디오노 FLAG 대표는 “이번 판결은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큰 발전”이라며 “두테르테 대통령과 경찰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살됐다고 밝힌 대규모 사망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해 11월 현재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505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재판 없이 사살된 초법적 처형 희생자를 1만20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해 주시죠”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일 만수 대의사당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게 선물할 러시아 백작 빅토르 코추베이 흉상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당에 손 내민 메이 총리 “브렉시트 연기 한번 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노 딜’(no deal) 우려가 커지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결정했다. 한편으로는 하원의 벽에 가로막힌 브렉시트 합의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노동당과의 간격을 줄이기 쉽지 않은 데다, 합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하원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승인까지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특별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 계획을 논의

했다. 정부 각료들은 물론 고위 관료들까지 참석한 이날 회의는 무려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전날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두 번째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했지만, EU 관세동맹 잔류와 노르웨이 모델, 제2 국민투표 등 어떤 안도 의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영국 정치권이 계속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EU 내에서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EU가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EU와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 합의점을 찾지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와 합의점에 이르면 이후 의회 승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 문턱을 넘어도 과제는 남아 있다.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와의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거치면 오는 10일 열리는 EU 정상 회의에서 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시기로 했다. /연합뉴스

### 시진핑 이어 리커창 유럽행... ‘일대일로’ 세일즈 총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유럽을 방문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 등 상호 관계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도 유럽 순방에 나선다.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오는 8~1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1차 중-EU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리 총리는 이 기간 크로아티아 총리의 초청을 받아 크로아티아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리 총리의 이번 방문은 중국의 핵심 국제사업인 일대일로에 EU 회원국의 참여

를 독려하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세를 불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총리의 유럽 방문에 앞서 시 주석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를 순방하며, 일대일로 참여 등 중국과 유럽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지난 23일 중국과 이른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 친밀도를 높이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리 총리도 유럽 정상들과 만나 양측간 경제협력,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일대일로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미국 1분기 자동차 판매 3~4% 감소

올해 1분기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4%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산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 판매량은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 3월은 봄 판매 기간의 비공식적인 시작으로 여겨져 자동차 판매량이 많은 달로 꼽히는데도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이날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올해 1분기 미국 시장 자

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7%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아트크라이슬러도 같은 기간 판매량이 3% 감소했으며 도요타와 닛산의 판매량도 각각 5%와 11.6% 줄었다. 같은 기간 혼다의 자동차 판매량만 2% 증가하며 홀로 선전했다. 포드는 오는 4월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분기 판매량 감소로 인해 올해 미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천700만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중구자 저변 확대 등이 신차 수요를 떨어뜨리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서울터럭사사무소(주)